“올해 지역 대표 연극은”…광주연극제 막 오른다

연극협회시지회, 10~13일 빛고을시민문화관·광산문예회관
‘백조의 노래’·‘…수다’·‘스무살의 비망록’ 등 4개 작품 선봬

제40회 광주연극제가 10일부터 13일까지 광산문예회관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제39회 광주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극단진달래피네의 ‘흑색소음’ 모습.

시민들과 울고 웃어온 ‘광주연극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다.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광주시지회가 주최하는 광주연극제는 예향 광주를 대표할 작품을 공연해 시상해왔다.

대상을 받은 작품은 지역을 대표해 전국 시도 대표들과 경연을 벌이는 대한민국연극제에 출전한다. 지역 대표 극단과 작품을 선정하는 공식 지역 예선대회인 셈이다.

올해 40회를 맞이한 광주연극제는 연극문화공동체 DIC의 ‘백조의 노래’와 극단 까치놀의 ‘성(性)스러운 수다’, 극단 시민의 ‘산불’, 극단 터의 ‘스무살의 비망록’ 등 총 4개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먼저 연극문화공동체 DIC의 ‘백조의 노래’(연출 정문희, 작가 안톤체홉)가 10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작품의 주인공은 한 때 잘나가는 배우였지만 현재는 잊힌 배우다. 그가 텅 빈 극장에서 과거의 영광과 예술가로서의 삶을 회상하면서 배우로 살아온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고 마지막 열정을 드러낸다.

이어 극단 까치놀의 ‘성(性)스러운 수다’(연출 심성일, 작가 오재호)가 11일 오후 7시30분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다.

펀드매니저와 그래픽 디자이너, 피임기구업체 사장 으로 이뤄진 세 명의 독신녀들이 한 집에 모여 6년째 수다를 떤다는 설정이다. 비밀스럽게 숨겨 놓았던 성을 솔직하게 드러내 이야기해보고, 더 나아가 깊이 있게 고민한다.

극단 시민의 ‘산불’(연출 김민호, 작가 차범석)은 12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진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여성과 노인뿐인 마을. 청년당에게 아들과 사위를 잃은 최씨와 청년단 활동을 하다 도망간 아들을 둔 양씨가 갈등을 겪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데올로기 이념의 허구성, 인간의 본성 등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마지막 작품인 극단 터의 ‘스무살의 비망록’(연출 박규상, 작가 박규상)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이뤄진다.

한 대학교 후문 앞에서 30년째 음악다방을 지켜온 여사장이 치솟는 임대료와 밀린 집세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으로 파티를 열기로 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작품을 통해 여사장이 음악다방을 운영한 세월 속 묻어뒀던 진심을 드러낸다.

경합을 통해 수상한 극단 및 작품은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릴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 본선에 진출한다.

한국연극협회 광주시지회 관계자는 “광주연극제는 지역 연극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광주 공연예술의 저력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지역 공연예술의 역사이자 축제이다.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보여주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배우들의 숨결과 관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연극의 순간. 따뜻한 봄날, 많은 시민들이 공연장을 직접 찾아 연극의 깊은 매력을 만나 광주를 대표할 극단과 작품을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연극제 무대로 나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막식은 10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로비에서 열린다. 폐막식 및 시상식은 14일 오후 4시 미로극장 1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모든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네이버폼, 플레이티켓, 티켓링크를 통해 사전 예매를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열린 제39회 광주연극제에서 뽑힌 극단 진달래피네의 ‘흑색소음’은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에서 은상을 차지한 바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

웃음과 긴장 사이…재인 김인호 줄 위 인생 이야기

사이로, 14일 남도국악원
재담·줄타기·연주 등 무대

국립남도국악원 토요상설공연으로 마련된 사이로의 ‘재담 Rope Dancing’이 오는 14일 오후 3시 진악당에서 열린다.

마지막 광대로 알려진 이동안(1906~1995) 명인의 스승으로도 알려진 용인 출신 김인호의 예능 가운데 재담과 줄타기를 소재로 한 창작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이 토요상설공연으로 사이로의 ‘재담 Rope Dancing’을 선보이는 것.

창작공연인 ‘재담 Rope Dancing’은 타이틀에서 엿볼 수 있듯 ‘줄 위를 걷는 인생’을 음악과 연희라는 상징으로 표현한다. 삶은 언제나 균형과 불안, 웃음과 긴장의 반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경기민요 ‘오봉산타령’과 경기도당굿의 낙궁을 기반으로 한 ‘줄타기Ⅰ’로 줄타기 전 놀이판의 흥을 돋우는데 이어 줄에 오르기 전 안전과 성공을 비는 ‘줄고사 거리’, 봄의 생명력과 인간의 만남을 노래한 가야금과 경기소리의 듀엣 ‘사이로 春(춘)’을 차례로 선보인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줄타기와 재담이 결합된 창작연희 ‘줄타기Ⅱ’이다. 재인 김인호의 예술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삶과 죽음, 전통과 현대를 한 무대에서 교차시킨다.

이번 무대는 오봉산타령과 경기민요를 중심으로 줄 위의 긴장과 균형, 삶의 희로애락을 소리로 풀어내는 점이 특징이다. 장단과 선율, 재담과 연희자의 몸짓이 결합해 보이지 않는 ‘줄’을 관객의 상상 속에 생생하게 구현한 구성이 인상적이다. 몽골의 전통악기 마두금과 서양악기 트럼본을 활용한 곡 구성으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무대를 준비할 ‘사이로’는 가야금과 경기민요, 타악, 연희 연주자로 구성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소속 단원들이 모여 결성한 공연예술단체다. 단체명에는 그들만의 새로운 음악의 길을 걷는다는 의미의 ‘사잇길’이란 뜻이 내포돼 있다. 지난 2019년 ‘만복사저포기’를 시작으로 창작 활동을 해왔다.

무대에서는 가야금 인은기, 경기소리 하지아, 타악 이석종, 연희 박상득, 트럼본 김태훈, 마두금 뭉흐진이 출연한다.

공연은 오는 14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열린다. 공연 전후 진도읍사무소와 국악원, 장등문화센터(고군면 오일시)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11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연은 무료. 문의 061-540-4042.

정채경 기자 view2018@

‘첫번째 기적’

‘하늘에서 내려온 빵’

‘장미십자가’

‘스테인드글라스 유리모자이크’ 작품 출품

광주대 호심미술관, 임헬레나 작가 개인초대전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호심미술관은 임헬레나 작가의 스테인드글라스 유리모자이크 초대전을 지난 4일 개막, 오는 15일까지 ‘빛, 나는 유리 part3’이라는 명칭으로 열고 있다. 출품작은 스테인드글라스와 유리모자이크 작품 50여점.

작가는 20여 년 전 어느 방송에서 유럽 수도원의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과정을 처음 접한 뒤 빛이 스테인드글라스를 투과하며 영롱한 빛으로 변하는 순간, 깊은 감동과 전율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에 입문했다.

스테인드글라스는 색유리 유닛을 잘라 납선·동테이프로 연결해 완성한 후, 빛이 투과하며 영롱한 세계를 이루는 시공간예술로, 본래 서양 종교 예술로 발전했지만, 근래 동양 정신과 미학이 접목되면서 새로운 융합 공간예술로 주목받고 있다.

최준호 호심미술관장은 “작가는 적재적소에 유닛을 배치하고 적절한 색채를 부여하며 ‘빛의 투각’을 통해 생동감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등 동양 정신과 미학을 추구하고 있다”며, “산티아고길 순례객처럼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스테인드글라스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헬레나 작가는 조선대 미대 산업디자인학과(시각디자인 전공)를 졸업, 제5회 개인전과 다수 단체전에 출품했으며 스테인드글라스 제작·설치·복원 작업에 참여해 왔다. 현재 서울대교구 명동성당 문화학교 스테인드글라스 강사를 맡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일흔 넘은 제자가 스승님을 모신 이유는

미술리뷰

황순칠 화가, 팔순의 초등 담임 선생님 모셔
개막식서 제자 격려…“훌륭한 작가가 되길”
매화로만 개인전…내일까지 무등갤러리서

스승과 제자 사이, 오늘날 삐걱거리는 불협화음의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게 사실이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것은 현시대 옛말이 된지 오래다. 세상과 인심이 변한 탓이다. 예전만 해도 스승이 학부모보다 훨씬 배움이 길어 존경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요즘 들리는 소식은 교권 추락을 망라해 심할 경우 쌍방간 폭력 행사로 뉴스거리가 돼 개탄스럽게 하는 경우마저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58년 전에 인연을 맺은 제자가 초등학교 스승을 전시장으로 모셨다. 스물네 번째로 전시를 마련한 전남 여수 출생 고담 황순칠 작가(72)가 그 주인공이다.

작가는 지난 5일 개막, 오는 11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스물네번째 개인전을 ‘고담매화’라는 주제로 열고 있는 가운데 전시 첫날인 지난 5일 오후 7시 전시장에서 성대하게 개막식을 진행했다. 1955년생인 작가의 전시 개막식 자리에는 나이 지긋한 분들이 많이 참여해 그의 전시를 축하해줬다. 김준태 시인을 비롯해 김원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장관급) 등 여러 내빈과 미술계 어르신, 선후배 등이 참여해 그의 전시를 축하해줬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작가가 6학년 때인 1968년 담임을 맡았던 윤효일 선생님(84·전남 여수시 소라면)의 카랑카랑한 축사가 단연 눈에 띄었다. 사제지간의 금도가 무너진 지 오래인데 마치 시간이 50년 전 그대로 멈춘 듯했다. 제자의 전시를 축하하기 위해 멀리서 노구를 이끌고 오신 선생님의 제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보여 흐뭇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스승은 “말도 좀 어눌해지고 또 기억력도 자꾸 떨어져서 이제 내가 이런 데서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황순칠,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잘 자라나서 또 이렇게 큰 전시회를 갖게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올라왔다”면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생계를 책임졌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그런 형편에서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나타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잘 된 걸 보니까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했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용날 수가 없는데 하면서 잘 성장한 제자를 은근 자랑스러워 했다.

지금은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세상이다. 자본주의의 무한경쟁 속에서 부의 세습 등 계층별 블록이 단단하게 고정돼 있어 용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한다는 발언으로 이해됐다. 스승은 개천이 말라서 한강물이라도 마셔야 용이 날 수가 있다며 큰 작가가 된 제자를 에둘러 칭찬했다. 스승의 말씀 동안 제자에 대한 자긍심이 넘쳐났다. 때마침 전시장에는 화엄홍매, 독수매, 와룡매, 미암홍매 등 매화꽃이 활짝 만개한 그림 32점이 내걸렸다. 이것을 의식이라도 한듯 그의 스승은 지난 4일 식구들과 함께 순천만 부근을 지나다 활짝 핀 매화꽃을 떠올리고는 그 향기를 맡으면서 황순칠 제자의 노매화 작품을 봤다. 늙은 매화인데 이 추운 겨울을 다 지나고 오늘이 경칩이나 개구리가 태어난 이때에 아름다운 매화꽃을 피우는 것을 보며 감개무량해 했다.

스승은 일전에 제자가 피아노를 치는 것을 접했다며 한번은 딸하고 기가 막히게 피아노를 치는 것을 보고 “누구한테 배웠느냐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독학해서 배웠다”고 하는데 저도 음악을 좋아하지만 이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고도 했다. 피아노를 치는 것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다는 점 역시 잊지 않았다.

스승은 훌륭한 예술가로서 성장하고 또 후배들을 잘 양성하기를 기원했다. 그러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지는 않지만 한강물을 마시더라도 우리나라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작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을 담은 축사를 갈음했다. 오늘날 새태같지 않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돈독한 신뢰를 엿볼 수 있어 울림이 큰 자리가 됐다.

“사촌이 잘되면 배가 아픈 세상이지만 제자가 잘돼 배아픈 선생은 없습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